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관세 비용 부담, 회사에서 소비자로 바뀐다
- YahooFinance: 연준 이사 Bowman, "올해 3차례 금리 인상될 듯"
- WSJ: '미국, 국가 자본주의로 향한다'

[미국 금융]

- Bloomberg: 미국 달러 지배적이지만 미국 정책이 이를 약화
- Bloomberg: BofA, 미 국채 수익률 하향 조정
- WSJ: 미 기업들, 기록적인 속도로 자사주 매입

[무역전쟁]

- WSJ: 중국에 칩 수출 엔비디아, AMD, 미 정부에 수의 15% 제공
- Bloomberg: 미 소규모 기업, 관세로 연간 2,20억 달러 타격 예상

[오일]

- Bloomberg: 유가 67달러 선...트럼프-푸틴 정상회담 앞두고

[전기차]

- CNBC: 소비자들, 전기차 구매 서두른다...세액 공제 폐지로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Lyft, 매출 증진 위해 로보택시 투자
- WSJ: AMC, 매출 급증에 손실률 감소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sumers Will Bear the Brunt of Tariff Costs, Goldman Says

관세 비용 부담, 회사에서 소비자로 바뀐다

-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이 미 관세 비용의 상당부분을 흡수해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말했다.
- 이에 따르면 미 소비자들이 지난 6월까지 관세 비용을 22% 부담했으나 관세율이 과거 상황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 비율이 67%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 반면에 지금까지 기업들의 관세 부담율이 64%였으나 앞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 외국 수출업체의 부담율은 14%였으나 앞으로 25%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여파로 올해 12월 연간 핵심 물가지수는 3.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Bloomberg 기사

**YahooFinance: Fed's Bowman makes case for 3 interest rate cuts in 2025 after voting against July hold
연준 이사 Bowman, “올해 3차례 금리 인상될 듯”**

- 연준 이사 Michelle Bowman은 일자리 상황과 전반적인 미 경제에 대한 우려 가운데 올해 금리가 3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 그는 “계속 금리 인하가 계속 연기될 경우 노동시장과 추가적인 미 경제 둔화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편 그는 지난 7월 금리 동결 결정 때 반대표를 던졌다.
- 그때 연준 이사 Chris Waller도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YahooFinance 기사

**WSJ: The U.S. Marches Toward State Capitalism With American Characteristics
‘미국, 국가 자본주의로 향한다’**

-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처럼 정치적인 영향력을 경제 분야에도 행사하고 있다.
- 30여년 전, 중국의 자유화 움직임이 있을 당시 중국 경제는 미국의 모습을 닮아 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중국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 트럼프가 인텔 사장 해임 요구를 했고 일본의 US Steel 인수에도 관여했으며,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에 1조5천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도 트럼프가 관여했다. 중국과 같지는 않지만, 미국의 자유 시장 체제에서 크게 벗어난 상황이다.
- 이와 관련 국가는 민간시장처 자본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왜곡, 낭비, 족벌주의가 따르게 된다. 러시아와 브라질, 프랑스가 지금까지 미국보다 더 디게 성장해왔다. 중국도 시진핑이 국가 통제를 해오면서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하였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he Dollar Still Rules, But US Policy Is Making It Less Special
미국 달러 지배적이지만 미국 정책이 이를 약화**

- 트럼프가 미국에 유리하게 글로벌 경제 질서를 개편하려는 가운데, 달러가 기축 통화로써의 지위 도전을 받고 있다.
- 달러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데 달러 지수는 올해 상반기 동안에 10% 이상 흔들렸다. 이는 1973년 이래 반년 기간 동안 최악의 상황이며 아시아 일부의 경우는 달러 자산 노출을 줄이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가 다른 주요 통화와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금리 인하 등 강 달러의 혜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Bank of America lowers US rates outlook on weak data, Fed risks

BofA, 미국채 수익률 하향 조정

-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경제 지표로 인해 연준의 리스크 평가가 변동됨에 따라 향후 국채 금리 수익률을 하향 조정했다.
- 2년물 국채 금리는 올해 말에 당초 3.75%에서 3.5%로, 10년물 수익률은 예전의 4.5%에서 4.25%로 하향 조정했다.
- 이 은행은 연준의 독립성 약화 리스크로 높은 인플레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 하락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 이 은행은 연준의 금리 수준은 내년 하반기까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둔화 지표로 인해 금리 하방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American Companies Are Buying Their Own Stocks at a Record Pace

미 기업들, 기록적인 속도로 자사주 매입

- 대형 은행과 기술 기업들의 주도로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는 1조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으로 기술 기업의 경우는 애플과 알파벳, 은행의 경우는 JP 모건 등이 자사주 매입을 주도하고 있다.
- 강한 실적과 감세가 자사주 매입을 부추기고 있는데 무역 불확실성이 투자를 저연시키고 있다.

WSJ 기사

[무역전쟁]

WSJ: Nvidia, AMD to Give U.S. 15% Cut on AI Chip Sales to China 중국에 칩 수출 엔비디아, AMD, 미 정부에 수익 15% 제공

-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미 정부에 판매 수입 일부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 엔비디아의 저성능 H20 반도체 수출 판매 수익 15%를 미 정부에 제공키로 했고, AMD는 MI308 반도체에 수익 일부를 정부에 제공키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이 같은 결정은 엔비디아 잭슨 황이 최근 트럼프와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논의한 후에 이뤄졌다.

WSJ 기사

Bloomberg: Small US Firms Paying Trump Tariffs Face \$202 Billion Annual Hit 미 소규모 기업, 관세로 연간 2,020억 달러 타격 예상

- 소규모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준수하고 상승한 수입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가운데, 재정적 부담이 커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글로벌 물류 기업 Geodis의 부사장 Erin Williamson은 대기업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비용을 처리할 재원을 많이 갖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소규모 기업들이 받는 관세 부과액은 연간 총 2,02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기업당 연간 약 85만 6천 달러로 추산된다.
- 골드만 삭스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6월까지는 관세 부과 비용의 절반 이상을 기업들이 부담했으나, 향후 몇 달 안에 소비자의 부담이 67%로 증가할 것이다.
- 전미소매업연맹은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Bloomberg: Oil Holds Near \$67 as Traders Look Ahead to Trump-Putin Meet 유가 \$67달러 선...트럼프-푸틴 정상회담 앞두고

-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하며 원유 주요 생산국 러시아의 공급 우려가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유가는 안정세를 보였다.
- 브렌트유는 지난주 4.4% 하락해 배럴당 67달러 근처에서 거래되었다.
- OPEC+이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생산량을 회복하면서 올해 유가는 10% 이상 하락했다. 경제 성장 둔화로 소비 감소 우려가 있긴 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

CNBC: EV sales soar as Trump axes \$7,500 tax credit: 'People are rushing out' to buy, analyst says 소비자들, 전기차 구매 서두른다...세액 공제 폐지로

-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으로 7,500달러 상당의 세액 공제 마감일이 다가오자 소비자들은 전기 자동차 구매를 서두르고 있다.
- 소비자들은 7월에 약 13만 100대의 신규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월간 판매량이다. 7월 EV 판매 점유율 또한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약 9.1%를 차지했는데, 이는 가장 높은 월별 점유율이었다.
-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 중고 전기 자동차가 밝은 전망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Cox Automotive는 “공급량이 증가하고 신규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인데, 이로 인해 신차보다 중고 전기차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전망 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Lyft Bets on Robotaxis to Drive Revenue Growth Lyft, 매출 증진 위해 로보택시 투자

- Lyft가 애틀랜타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시험 운행하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댈러 스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Lyft는 자율 주행 택시 사업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향후 몇 년 안에 유럽 전역에서 수천 대의 차량으로 확대하고 2026년 말 미국에서 자율 주행 셔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 Lyft는 2분기 매출이 11% 증가한 1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승차율과 예약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500만 달러에서 4,030만 달러로 증가한 것이다.
- 애널리스트들은 Lyft와 같은 승차 공유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운전자들의
- 임금을 낮출 수는 있겠으나, 주행 차량 운영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WSJ 기사

WSJ: AMC Posts Narrower Loss as Sales Surge AMC, 매출 급증에 손실률 감소

- 영화관의 회복세로 인해 AMC의 매출이 급증하며 2분기 손실이 감소했다.
- 2분기 매출은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입장료 매출은 35% 증가한 7억 6,260만 달러를 기록했고, 식음료 매출은 36% 증가한 4억 9,960만 달러에 도달하며 두 부문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
- AMC는 평균 티켓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더욱 편안한 좌석, 더 많은 음식 및 음료 옵션 등 프리미엄한 고객 경험이 소비자의 극장 방문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보고서]

애플도 구글 모회사도...미국 기업 자사주 매입 러시 올해 매입액 역대 최고 연말까지 1조1천억 달러 넘을 듯

미국 기업들의 올해 자사주 매입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

경영실적이 좋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면서 남아도는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산운용사 버리니 어소시에이츠의 자료를 인용,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자사주 매입액이 9천836억 달러로, 1982년 관련 기록 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